1. 멘토링 서비스에 멘토님이 사용 이점이 크지 않아 모집이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프로젝트가 문제없다 판단한 계기는 요즘 MZ세대 직장인들이 N잡을 하면서 재능마켓 플랫폼 같은 어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았고 기존에 잇다, 코멘토 같은 멘토링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멘토, 멘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애초에 멘토링 시스템이 멘토님이 큰 메리트가 없어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하셨고 개발을 계속하려면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우리 어플의 차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멘토링은 멘티가 멘토를 고르는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반대로 멘토들도 멘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에 회사, 부서정도만 보고 이루어졌던 멘토링 시스템에서 학점 등 개인적인 상황을 더 추가시켜 그에 따른 맞춤 멘토, 멘티 추천함으로써 더 도움이 될수있도록 한다.

결국 멘토님 모집 관련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추후 기능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2. 개발 난이도가 너무 쉬워보여 기능추가가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큰 틀만 계획하여 세세한 기능이 생각되지 못해 게시판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이 설명되지 못하였다. 멘토와 멘티가 소통 할 수 있는 1:1 채팅기능을 구현하고, 멘토나 멘티가 좋아요 표시를 했을 때 알림이 가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화상통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